

선택의 폭이 다양한 주거문화를 바라며

글 | 손세관 중앙대학교 교수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 주거 환경의 다양성은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의 구축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주택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평면형과 동일한 내장재를 공급하는 것이 건설비용과 생산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짓기만 하면 팔리는 공급주도의 시장상황과 맞물리면서 우리 주거환경은 너무 심할 정도로 판에 박혀버렸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그 공간 구성이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은데, 건설회사마다 차별화를 외쳐보지만 내부 마감에서 다소의 차이를 찾을 수는 있지만 공간의 형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문제는 사회가 진보할수록 소비자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개성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이 점점 다양화하면서 독신거주자와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주택을 구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



과 그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오늘날의 주거공급 방식으로는 그 추세에 부응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들여 평면을 고치고 내부 마감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건물이 신축되어 입주하자마자 내부를 개조하고 내장재를 교체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는 방법을 통해 주거에 대한 사회적인 소비를 억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 시장에 가능한 다양한 주거 형식과 주거 유형을 제공해 거주자의 선택의 폭을 넓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평면계획에 있어서 거주자의 계층별·요구별로 다양한 공간과 디자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경적 측면에서 좋은 주거공간은 결코 고비용의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좋은 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흥미 있고 다양함과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같이 주거이동이 잦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거 형식의 제공이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의 주거환경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건축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개별문화가 몰락되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가 속한 동양문화권의 경우는 서구건축이 가지는 형태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종속돼 문화적 고유성이 엄청나게 손상되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국가에서 범세계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 일종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뜻 봐도 조잡한 문화적 보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그리고 홍콩에서 런던까지 똑같은 저질 영화, 똑같은 저질음악, 똑같은 저질건물, 똑같은 아파트들이 판을 치고 있다. 다양성은 지역성에 바탕을 둔 형태적 고유성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 형태적 고유성은 문화적 독자성 속에서 이해되며, 한 문화권이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던 공간구조를 통해 재현된다. 이러한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고유성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공공에 의한 연구와 실험의 결과 도출된 모델주택, 시범단지 등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통한 실험과 일반화의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심형 고밀·중층주택’, ‘교외형 저층·고밀주택’ 등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주거 형식들을 실험적으로 개발하고, 일정 기간 거주시킨 후에 평가하고, 다시 개선된 형식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평면의 형식, 공유 공간의 형식, 주동의 형식, 분양 방식, 실내마감, 공법과 재료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실험과 연구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적인 태도는 특히 각 지자체가 선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환경에 관행적으로 길들여 왔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결국 수요자의 요구가 참신하거나 까다롭지 않아 공급자는 적당히 지어도 팔리는 주택만을 생산해 온 것이다. 또한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조차도 과연 좋은 주거환경 또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념과 목표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공급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주체들이 주거환경에 관한 적절한 지식과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가 주거환경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㉞

